

■ 출제 의도 및 근거

2023학년도 인문계 논술(오후 1) 문제는 근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확증 편향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드레퓔스 사건을 재해석하도록 한 후, 우화에 함축된 의미를 바탕으로 확증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확증 편향의 개념을 이해할 때에는 추론적 독서 능력이 요구되고, 이를 적용하여 드레퓔스 사건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한 분석 능력과 평가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화의 함축적 의미를 읽어내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확증 편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 문항은 추론적, 분석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제시문 (가)는 확증 편향에 대한 심리학적, 경제학적, 철학적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확증 편향의 정의, 원인, 문제점 등을 차례대로 서술하였다. 제시문 (나)는 드레퓔스 사건의 전말을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연암 박지원의 저술 《연암집》 및 《열하일기》에 공히 나오는 일종의 우화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평을 덧붙인 것이다.

문제 전체의 주제인 확증 편향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정보 비대칭성 개념(박형준 외, 천재교육, 85면 등),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SNS를 통한 정치 참여(황인표 외, 교학사, 201면 등),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정창우 외, 미래엔, 103~104면 등), <사회와 문화> 교과서의 정보 격차 및 정보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서범석 외, 지학사, 185~186면 등) 및 사회 불평등 중 소수자 문제(구정화 외, 천재교육, 143~146), 그리고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매체 정보의 속성,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매체의 주체적 수용(방민호 외, 미래엔, 130~157 등)과 연관이 깊다. 그리고 제시문 (다)의 우화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류수열 외, 금성출판사)에는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을 <요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내세워 실었는데, 이 논술 문항에서는 출제 의도를 살리기 위해 맥락이 약간 달리하면서 《연암집》에 실려 있는 글을 선택했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드레퓔스 사건은 세계사 과목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이 시기의 내용이 간략화되면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지는 않았다.

1. 평가의 내용

-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의 드레퓔스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주체(수사관, 법관, 언론, 군부)의 확증 편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밝혔는지 여부
- 2) 제시문 (가)의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나)의 ‘피카르 중령’, (다)의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드러냈는지 여부
- 3)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피카르 중령’을 모범으로, 그리고 (다)의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반대 모범으로 삼아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나 SNS 활동을 중심으로 확증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실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드레퓌스 사건을 적절히 재해석하고, (나)의 ‘피카르 중령’을 모범적 사례로 삼으면서, (다)의 ‘길에서 울고 있는 자’의 오류나 한계를 지적하면서 확증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sup>1)</sup>		10%
설득력 있는 분석적 추론 및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	설득력 있는 분석적 해석	제시문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드레퓌스 사건에 등장하는 보수적 언론, 수사관, 법관(법정), 군부, 군중 등이 지녔던 확증 편향의 양상을 밝히고 이로 인한 개인의 희생과 사회적 혼란을 각각 제시한다. <sup>2)</sup>	30%
	추론적 비교 분석	제시문 (가)의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나)의 ‘피카르 중령’, (다)의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서술한다. <sup>3)</sup>	20%
	구체적인 방안 제시	(나)의 ‘피카르 중령’을 모범으로, 그리고 (다)의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반대) 모범으로 삼아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나 SNS 활동을 중심으로 확증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실하게 제시한다. <sup>4)</sup>	30%
문장과 표현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평가한다.		10%

##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B>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p>① 글의 구성 면에서 ②~④의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 면에서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취하고 있다.</p> <p>② 제시문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드레퓌스 사건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이 지녔던 확증 편향의 양상을 밝히고 이로 인한 개인의 희생과 사회적 혼란을 각각 제시한다.</p> <p>③ 제시문 (가)의 ㉠, (나)의 ㉡, (다)의 ㉢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서술한다.</p> <p>④ ③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나)의 ㉡을 모범으로, (다)의 ㉢을 (반대) 모범으로 삼아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나 SNS 활동을 중심으로 확증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실하게 제시한다.</p>	①~④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①~④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p>-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p> <p>-700자 미만.</p>

####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	1,250자 초과	1,100자 이상 1,150자 미만	1,050자 이상 1,100자 미만	1,000자 이상 1,050자 미만	950자 이상 1,000자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 사용법· 어문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			-3 ~ -5	

#####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 및 단락 간의 형식적, 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 5. 유의 사항

- 제시문 (가), (나), (다)의 단순 요약으로 분량을 채우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함.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정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